

익산 팔봉 어르신 효도관광 '훈훈'

팔봉동 환경사랑회·주민지원협의체 500여명 모시고 세계꽃식물원 방문

익산시 팔봉동 환경사랑회(회장 오재선)와 주민지원협의체(회장 김한기)가 9일 어르신 500여명을 모시고 첫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환경사랑회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통합 후 첫 번째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팔봉동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세계꽃식물원을 방문해 봄나들이를 즐겼다.

두 단체는 이날 어르신들이 넉넉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7일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관광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새마을부녀회원들은 8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동행하며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마일별 배차, 식사 및 관광 안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오재선 환경사랑회장은 "지역 내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언제나 살가운 정이 넘치는 팔봉동



익산시 팔봉동 환경사랑회와 주민지원협의체가 9일 어르신 500여명을 모시고 첫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기 주민지원협의체회장은 "이번 행사가 세대 간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서로를 격려했다.

나덕진 팔봉동장은 "어르신을 배려하고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환경사랑회와 주민지원협의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정추진에 두 단체의 합차고 단결된 화합을 바란다"며 두 단체의 통합을 응원하였다.

팔봉동 환경사랑회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2일 팔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을 선언하였으며 오는 19일 2차 회의를 통하여 통합단체명 선정과 임원진 선출 등 공식단체 구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익산=정인현 기자

남원시 왕정동, 어르신 영양공급 나서

엄마알뜰반찬과 협약... 11일부터 밀반찬 지원키로

남원시 왕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황의홍, 이장근)에서는 '엄마알뜰반찬'과 협약을 맺고 거동이 불편해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13가구에 오는 11일부터 밀반찬을 지원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랑 가득찬(밀반찬) 사업은 찾아가는 '엄마알뜰반찬'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기본 재료비만 받고 싱싱한 식재료들로 밀반찬을 제공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왕정동 복지전담팀에서 추천한 대상자로 지원하게 되고, 밀반찬은 주 1회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전달하게 되며, 방문 시 안부 및 안전을 확인하고 불편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는 복지 모니터링사업

도 병행한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동네복지 실현을 위해 구성된 왕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6년도부터 "천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나눔캠페인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1,600만원의 기금이 모아졌으며 이 기금으로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2017년도에는 교육복지사업인 "다 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 사업을 추진했고, 2018년도에는 "사랑 한병, 건강 한병"(요구르트 배달) 사업, "사랑에 후 생신케이크" 지원 사업, 집수리사업 등 지역에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남원=김기두 기자



황의홍 왕정동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동네복지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 소통 통해 자연스런 의무위반 예방효과 높여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청문감사실은 과·팁별 필드데이를 통해 직원 간 친목도모와 소통을 통한 자연스런 의무위반 예방효과를 높이고 있다.

필드데이란 2007년경부터 영국 런던 등 주변국에서 시작한 야외 음악축제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장으로 교류와 소통을 통한 끼 발산과 신인을 발굴하는 축제에서 유래된 것으로, 벤치마킹을 통해 과·팁 소그룹별 직원들이 주변 산과 강 등으로 나가 자연을 체험하며 재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화합과 소통을 통한 서로의 장·단점을 찾아내 보완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주영 청문감사관은 "하지마라 등 지시문화에서 탈피, 조직원들 스스로 자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서장은 "경직된 사무실을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더욱 건강한 경찰조직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결론

▲이종원(박점순씨 장남)·군·전미희(전해석 전안군산림조합장·채혜선씨 처녀)양= 일사: 13일(토) 낮 12시, 장소: 진안북부미아산 마이돈 농촌 테마파크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 자원봉사단, 추천대교 환경정화활동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 전주교회 자원봉사단(단장 이재상) 소속 자원봉사단 2천여 명이 지난 7일 추천대교 아래 천변과 팔복동 탄소단지 인근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도마지파 체육복을 착용한 봉사단들이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봉사활동으로 올해도 새봄을 맞아 어김없이 천변에 나타나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도마지파 승격 11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된 환경정화 활동이어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주로 도마지파 성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으로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무려 1t트럭 10여대 분이나 되어 봉사단원 자신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재상 단장은 "후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하천을 우리 손으로 치우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 본분이라며,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 지역발전과 아름다운 하천을 지키는데 가능한 역량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 밝혔다. /익산=정인현 기자



김제시,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의식 향상 교육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9일 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의식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대응 요령을 교육하였다.

김제시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사이버 위협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들에게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진장소방서, 등산객 안전사고 방지 안전지킴이 운영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오는 5월말까지 토요일·공휴일에 등산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등산객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

이는, 봄철 등산객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산악사고 예방과 대응활동 중심으로 산불예방 순찰·화재예방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마이산 가위박물관 입구·덕유산 구천동 관광안내소에서 소방대원으로 편성된 등산객 안전지킴이가 운영되며, 주요 활동으로는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간이응급의료소 운영 및 응급처치 ▲산악구조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등이다.

더불어, 생활안전요령 중 국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완강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 홍보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경찰, 치안 공유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는 9일 각 가능 계장 및 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다양한 치안 관련 사안을 공유·분석·활용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무주경찰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는 지난해 20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담당 부서만 해결하기 곤란한 현안 문제들을 협의체 운영 회의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정책을 시행·해결되는 등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도출된 점에 착안하여 무주경찰서에서도 4월 9일부터 적극시행하게 되었다.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생활안전 기능에서 제안된 '범죄예방 CCTV 설치'전에 대하여 수사부서, 지역경찰, 생활안전 기능이 상호조정, 설치 각도, 예산관련 균형 협조요부에 대한 기능별 협조방안을 도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내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서, 교통사망사고 예방 합동 대책회의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지난 8일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및 생활안전교통과장, 각 파출소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수관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박정원 장수경찰서장 주재로 교통사망사고 발생현황 분석과 예방대책 마련을 논의했으며, 불철 농번기 및 행사철에 접어들면서 어르신 보행자와 이륜차·농기구 교통사고예방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노인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약자 보호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안전 교육·홍보 등 교통사고로 부터 노인 사망자를 감소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